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솔직, 대담한 性

남자들이여, 안되면 숨기지 말라

비뇨기과 하면 언뜻 성병이나 취급하는 곳으로 연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비뇨기과는 비뇨기계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만들어지고 통과하는 요로계 질환을 다루는 동시에 남성 생식계 즉 고환, 부고환, 정관, 정낭, 전립선의 질환을 다루는 과이다.

비뇨기과는 비뇨기학과 남성생식기학, 즉 남성의학을 취급하는 과이다. 남성의학은 남성체질과 남성의 성적 질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남성생식기의 질환을 취급하는 학문이다. 즉 부인과와 대비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생식기는 생식기능과 성교기능 두 가지 주된 작용이 있으며 따라서 남성의학에서는 불임증과 피임법을 다루는 생식의학과 성기능을 다루는 성의학이 주된 분야이지만, 그 외 성병과 생식기의 기형, 종양, 손상 등도 포함된다.

인간 최고의 본능인 생식기능과 성교기능을 다루는 남성의학이 불과 십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미지의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의료광고의 영향으로 남성성기수술을 주로 하는 학문으로 오인 받기도 한다.

남성의학이 이제야 양지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 섹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연구하고자 관심이 있는 학자도 천박하다는 비웃음을 받기가 싫어 기피해 왔었지만, 현재는 비뇨기과학내에서도 제일 회원이 많고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가 남성의학이다.

과거에는 섹스에 대한 생리나 장애 치료에 대한 조언은 선인들의 경험담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생활이나 성애술에 대한 책자도 거의 모두가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는 비법이니, 성력을 회복시키는 단련법, 또는 지속력을 강하게 하는 법이나 하는 얘기들은 경험에서 나온 민간요법으로 왜 좋은지 과학적인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떤 진단법이나 치료법이든 여러 사람에게 시행했을 때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과학적이고 합당한 치료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남성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하여 발기의 생리 병리 등 기초적인 것이 이미 밝혀졌으며 거기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법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발기 장애에 대한 치료법으로 약물요법, 주사요법, 수술법까지 개발되어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성기능은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생기고 힘이 돋듯이 아름다운 여성을 상상하거나 보면 성욕이 생기고 음경이 발기를 한다. 발기된 음경이 성행위로 사정과 함께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완되면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끝이 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 지지 못하면 발기 장애가 되는데 기질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발기 장애의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비만 등의 기질적 요인이 동반된다.

끝으로 성생활이라는 것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항상 여성이란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여성의 만족으로 남성의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완벽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의 생리와 성반응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이러한 것은 선진국과 같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행하여 행여나 성을 터부시하는 문화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젠틀맨비뇨기과 원장〉

뉴스퀴즈

72. 평창이 '철의 장막' 크렘린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창은 지난 5일(한국시간)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19차 총회 2014년 개최지 결정 2차투표에서 러시아의 소치에 47-5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4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역전패를 당해 2회 연속 행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①동계올림픽 ②동계유니버시아드
③월드컵축구 ④동계아시안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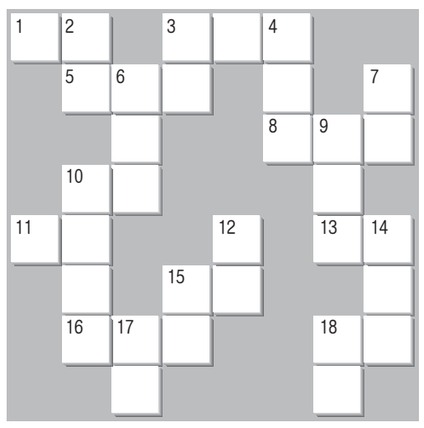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59 >



→ 가로풀이

1. 야구장에서, 본루 일루 이루 삼루를 연결한 선의 구역 안. ↔외야. 3. 관청, 회사, 학교 등의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는 곳. 5. 다른 나라의 말을 이르는 말. 8.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월급은 최저 ~에도 미치지 못했다. 10. 기차. 또는 여러 대의 객차나 화차를 연결해 편성한 한 줄의 차량. 11.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새는 ~을 마음껏 날아다닌다. 13. 기술이나 솜씨가 아주 교묘함. 그 피아니스트는 오늘 독주회에서 고난도의 ~를 발휘하였다. →테크닉. 15. 극(劇)이나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클라이맥스. 16. 생선, 김, 미역 등의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 18. 육상(陸上)으로 난 길. 만일 이 배를 놓친다면 그는 ~로 피난을 가야 한다.

↓ 세로풀이

2. 집 밖이나 노천(露天)을 이르는 말. ~ 수업. ~ 결혼식. 3.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 구문 상 하나의 낱말과 같은 구실을 하는 말. 또는 관용적으로 쓰이어 특별한 뜻을 나태는 문구. →관용어. 4.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 보고 익히는 학생. 6.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서민 대다수를 위해 만든 경승용차를 이르는 말. 7. 시간이나 재물 등을 헛되이 헤프게 씀. →허비. 9. 수량이나 부피 등을 재는 데 쓰는 기구. 수도 ~. 10. 제식 훈련에서 줄지어 선 채로 약간 편하게 왼발을 약간 옆으로 벌리고 양손을 등허리에서 맞잡으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12. 문서의 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함. 헌법 ~. 그는 악법의 ~에 힘썼다. 14.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선로가 서로 엇갈린 길. 15. 전기를 아껴 씀. 또는 전력을 절약함. 17. 둥근 도자기의 모양을 고르는 데 쓰이는 돌림판. 18. 어린아이를 기름. ~ 일기. ~ 문제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함께 풀어봅시다 258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이상이·광주시 북구 운암동
노선아·광주시 북구 두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음 5월 25일 甲辰)

子 36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48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60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72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 84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 행운의 숫자 : 01,44

丑 37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49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 61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다. 73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 있다. 85년생 백사가 순조로우나 재정에 관한 일은 직접 챙겨라. 행운의 숫자 : 04,35

寅 38년생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0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 오니 조심하라. 62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4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38

卯 39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서 대고역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51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3년생 타에 의한 사언과 손재가 우려 된다. 75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08,41

辰 40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52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64년생 친구 친척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76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42

巳 41년생 헛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3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5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되리라. 77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3,43

午 42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4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66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78년생 촌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2,28

未 43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55년생 하루를 즐겁게 보내라. 67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9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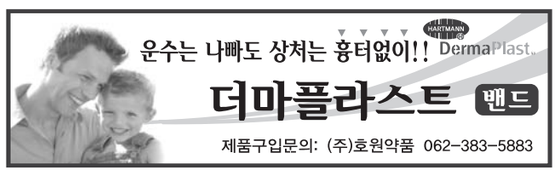
申 44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6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68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80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행운의 숫자 : 0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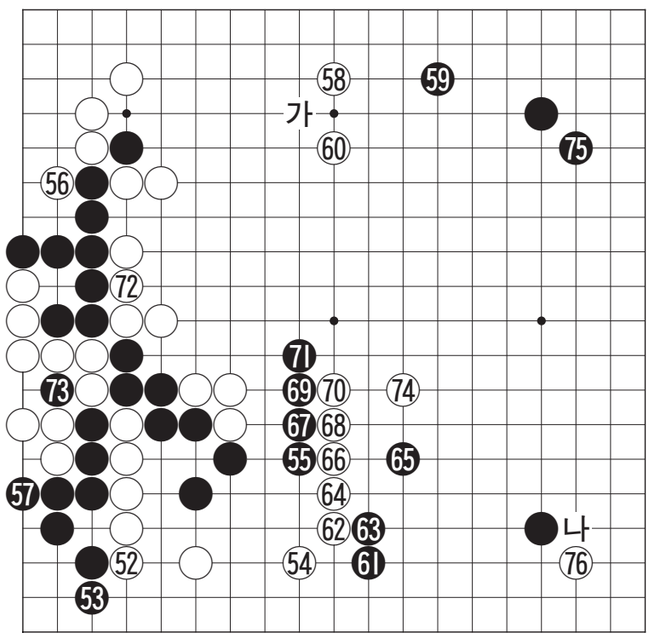
酉 45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게 된다. 57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69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81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행운의 숫자 : 21,16

戌 46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격이요. 58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70년생 전화위복이니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82년생 애인과 이성교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생각을 깊게 하라. 행운의 숫자 : 05,43

亥 47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있다. 59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71년생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과시는 금물. 행운의 숫자 : 17,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균형 잡은 천하의 요소 4보(52~76)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때 이르게 좌변에서 큰 손실을 본 박광주 5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쉽게 착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잡힌 돌은 20여집에 불과해서 그렇게 큰 집은 아니다. 그러나 이 돌은 세군데의 흑을 차단하고 있는 요석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요석이 잡히면 공격 대상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하변 백이 약해져 55라는 천하의 요소를 허용하고 백 54로 지켜야 하는 것도 괴로움을 더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절대점인 백 58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이곳을 차지하므로서 집으로 균형을 잡고 추격할 발판은 마련되었다.

흑 59는 유리하다고 보고 자중한 수. 만약 불리하다면 '가'로 어깨짚어 바짝 조여가거나 60으로 모자를 씌워 백 세력을 견제했을 것이다.

흑 75는 보다 넓은 곳인 우하귀에 '나'로 철주를 박고 싶다. 약간 느슨해진 김광식 5단의 방심을 비집고 박광주 5단이 즉각 76으로 침입하여 새로운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한국, 후지쓰배 10연패 예약

이창호 9단과 박영훈 9단이 후지쓰배 우승컵을 놓고 형제 대결을 펼친다.

이창호 9단은 7일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제20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장쉬 9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 요다노리모토 9단을 물리친 박영훈 9단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박영훈 9단은 요다노리모토와 치열한 종반 싸움을 벌인 끝에 232수 만에 백 반집승을 거뒀다. 이 9단도 장쉬의 중앙 실착을 틈타 승기를 잡으며 263수만에 흑 불계로 승리했다. 한국 기사들 간의 결승 대결이 성사됨으로써 한국은 후지쓰배 대회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943>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reconsider it.

다시 한번 고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reconsider renewing the contract.
B : I'm sorry, but as long as our views don't agree, I can't agree to renewing the contract.
A : Then, would you give me one more chance to discuss the whole thing?
B : Sure, I would.

A : 다시 한번 고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B :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전 계약 갱신에 동의 할 수 없군요.
A : 그럼, 모든 문제를 검토할 기회를 한반 더 주시겠습니까?
B : 그럼요, 그렇게 합시다.

* I would appreciate it if ~ =만약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I think you misunderstood what I was trying to explain.
* 아 그러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Oh? Could you explain it to me slowly once mor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43>

その大(おお)きな箱(はこ)は何ですか。

그 큰 상자 무엇입니까.

A : その大(おお)きな箱(はこ)は何ですか。
B : これですか。こっちは冬(ふゆ)用(よう)の掛(か)け布■(ぶとん)と, 敷(し)き布?(ぶとん)で、こっちはこたつですよ。
A : えっ、まだ夏なのにもうそんな物を買うんですか。
B : 特(とく)に冷暖房(れいだんぼう)器具(きぐ)は, シズンオフに買うと安いんですよ。

A : 그 큰 상자 무엇입니까.
B : 이거 말입니까. 이 쪽은 겨울용인 덮는 이불과 요이고, 이 쪽은 코타쯔입니다.
A : 에, 아직 여름인데 벌써 그런 것을 삽니까.
B : 특히 냉난방 기구는 비수기에 사면 쌉니다.

冬(ふゆ)用(よう) : 겨울용
特(とく)に : 특히
冷暖房(れいだんぼう) : 냉난방
シズンオフ : 시즌 오프, 비수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33>

我收拾房间呢

나는 방 정리하고 있어

A: 请进。
Qǐngjìn.
청 진

B: 你在做什么呢?
Nǐ zài zuò shénme ne?
니 짜이 쭈워 션머 너?

A: 我收拾房间呢。
Wǒ shōushí fángjiān ne.
워 셔우스 팡지엔 너

B: 今天天气多好啊，咱们出去逛街吧。
Jīntiān tiānqì duō hǎo'a, zánmen chūqù guàng jiē ba.
진티엔 티엔치 뚜워 하오 아. 짠멘 추취 꾸앙 지에 빠

A: 들어와.
B: 넌 지금 뭐하고 있니?
A: 나 방 청소 하고 있어.
B: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쇼핑하러 나가자.

收拾 [shōushi] 정리하다, 청소하다
逛街 [guàng jiē] 거리를 거닐다(구경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60>

泰山(태산)

클 태, 산 산

태산(泰山)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타이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발음 한 것이다. '태산'이 해발 1천545m로, 중국 오악(五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높고 큰 산'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크고 많음'을 비유한다.

태산은 진시황을 비롯한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봉선(封禪)의식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산에는 얽혀있는 이야기도 많다. 그 중 백미(白眉)는 진시황이 산을 오르던 중 비를 만나 소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그 나무에게 오대부(五大夫)라는 작위를 주었으며, 뒷날 천하를 통일하였다는 이야기다.

오늘날도 천하의 대권(大權)을 꿈꾸는 사람들은 태산 등정(登頂)에서 비를 만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일기예보까지 확인하고 산에 오른다고 한다.

태산은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 오르고 또오르면 못오를리 없건마는 / 사람이 제아니오르고 뫼만높다 하더라."는 것이 가장 유명하고, '티끌모아 태산'이니 '태산명동(泰山鳴動) 서일필(鼠一匹)'과 같은 말로 희망과 풍자를 나타내는 말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